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음 9월 9일) 제238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중앙 · 지방협력회의 설치법 기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 총회서 "중앙-지방 가교역할 할 것"
지방자치법 · 재정법 등 국회 조속 통과 위해 힘 모으기로
송하진 도지사 "중앙정부 정책, 지역 의견 수렴해 수립을"

2022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유럽에서 귀국한 송하진 도지사(**사진**)는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학 행정기능 지방이양 추진상황,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에 따른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 지방분권 입법추진 대국회 활동 로드맵 등 4건이 보고됐으며, 지역주도의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보고안건 중 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은, 중앙과 지방의 논의장으로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밝혔다.

송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률·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하는 권역별 발전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송 지사는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수시로 소통함으로써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정부의 정책도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태마스터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도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더 빠르게'

6일 오후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00m 남자고등부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고 있다.

항공기용 컨테이너 제작업체, 완주에 '둥지'

에이알케이, 도-완주군과 3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완주군에 접이식 항공기용 컨테이너 제작업체인 ㈜에이알케이가 둥지를 튼다.

지난 4일 완주군은 전북도와 ㈜에이알케이가 참여한 가운데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에이알케이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내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약 2만평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에이알케이는 2017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10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접이식 항공기용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지난 2019년 6월 미연방항공청(FAA) 세계최초 기술표준품 형식과 제조(TSOA)를 승인 받았다. 향후 항공물류 증가와 함께 지속적 매출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에이알케이는 대규모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선택하고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이 완주군에 입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에이알케이의 투자를 시작으로 도내 항공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이알케이는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입지 및 설비 등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으로 약 10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진행 중으로 지난 8월 엘에스엠트론(주)에 이어 이번 투자까지 이끌어내며, 조기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완주=이중복 기자

'농업 무인화' 인류적 대업 달성 도전

전북대, '지능형로봇연구소' 개소

전북대학교 지능형로봇연구소 개소식이 지난 4일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능형로봇연구소(소장 김형석 전자공학부 교수) 개소식을 가졌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소식 이전에 열린 워크숍에서는 김상철 농촌진흥청 연구관이 '스마트팜 기술 현화이과 로봇 기술 활용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전북대 박동선 교수가 '인공지능과 사회변화, 문재성 전북대 교수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열린 개소식에는 김동원 총장과 김형석 연구소장을 비롯한 참여 교수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연구소 현황 소개와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전북대 지능형로봇연구소는 올해 교육부의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돼 3년 간 21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1단계 사업을 수행한 뒤 2단계와 3단계 지원 등을 통해 총 9년 간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농업 무인화를 위한 인공지능과 로봇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 전북지역에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을 일으키고, 전북지역을 무인농업 및 무인농업 관련 사업의 세계적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농업 무인화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로는 노지재배 무인화 기술을, 3단계로는 과수 재배 무인화 기술을 개발해 최종적으로 농업 무인화라는 인류적 대업 달성에 도전한다.

김형석 소장은 "지능형로봇연구소는 스마트 팜을 넘어 농작업의 무인화가 목표"라며 "사람대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능형 농업 로봇들을 개발해 대한민국 농업기술이 전통적인 농업 선진국들을 뛰어 넘고, 전북을 무인농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3 새만금 잼버리' 성공 기원

전북도, 2019 잼버리 코리아 페스티벌 성료

전북도는 지난 5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2019 잼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019 잼버리 코리아 페스티벌'은 전북도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했으며, 새만금 잼버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수도권 메가이벤트로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세계잼버리 성공기원 기념식, 홍보캠페인, 잼콘서트(K-pop)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장 주변에서 환경캠페인과 홍보부스 운영도 함께 이루어졌다.

기념식에는 전북도 행정부지사,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부안부군수,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농어촌공사 부사장,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 세계스카우트 관계자를 비롯해 2천여 관객이 함께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오늘 행사를 통해 온 국민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2023년 새만금에서 전세계 청소년들이 글로벌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